10.15686/fkl.2025..66.256

우생학, 섹슈얼리티, 선택의 멜로드라마
-전병순의『독신녀』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순헌칼리지 부교수

목차

1 머리말: 멜로드라마 장르의 형성과 사라진 여성작가의 창작들
2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독신녀』
3 포지티브 우생학, 국가통치의 수단인가 여성 개인의 선택인가
4 생명 재생산, 여성의 선택과 모가장의 가능성
5 과학적 플롯과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선택과 갈등
6 맺음말: 시대적 화두의 여성적 질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병순의 신문연재소설『독신녀』(1966)를 소개하고 재평가하려는 시도이다. 1960년대 대중소설이면서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중의 조건 때문에 이 소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품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시 읽기 해보면 1960, 70년대 출산통제와 우생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가족계획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독특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우생학은 나치나 일본의 제국주의 우생학이 대표적일 만큼 권위주의적 국가를 구성하는 한 방법이었다. 인종적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인구의 질을 통제하는 우생학은 생명의 계급화를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자연화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 시기 도입된 우생학이 1960년대 산업화를 위한 가족계획, 산아제한 정책에 의해 다시 인구정책의 핵심논리로 소환된다.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포지티브 우생학을 여성주인공이 선택하는 이야기가『독신녀』이다. 우월한 유전인자를 선택해 아이를 낳고 독신녀로 아이와 가족을 이루고 살겠다고 하는 독특한 서사로 구성된다. 가부장적 제도하의 사랑과 결혼, 임신과 출산의 프로세스를 선택의 서사로 바꾸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용어로 말한다면 비혼출산서사에 해당한다. 주인공 월라는 우생학적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아이를 품는 모성으로 거듭나는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대중소설은 지배이념과 저항이념이 경합하고 협상하는 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대의 대중적 욕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 역시 당시의 보수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혈통의 계승이라는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표층서사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의 불온함은 심층에서 저항이념으로 떠오르는 모가장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아비가 다 다른 세 아이와 주인공 월라, 그리고 양어머니가 함께 꾸려나갈 미래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결말은 이 작품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재생산통제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문핵심어: 여성문학, 1960년대, 멜로드라마, 우생학, 전병순, 독신녀

1 머리말: 멜로드라마 장르의 형성과 사라진 여성작가의 창작들

전병순의 『독신녀』는 1966년 부산일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그리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다. 이 작품은 신문연재소설로 대중소설이면서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중의 소외로 문학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작품을 다시 소환하면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1960, 70년대는 우리나라의 멜로드라마 장르가 형성된 시기이다. 과잉된 감정과 선악의 이분법, 파토스적 정서를 특징으로 하는 일상의 도덕극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 장르는 지금도 TV드라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멜로드라마가 가족극의 특징을 형성한 시기에 대표적인 대중소설 작가인 전병순의 작품을 여성적 멜로드라마의 한 특징으로 보려는 시도이다. 전후 한국의 대중드라마는 삼각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성, 사랑, 결혼을 둘러싼 기족의 위기와 극복을 주요 주제로 삼게 되는데 이는 전쟁으로 훼손된 가족의 회복을 염원하는 대중적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파괴된 가족의 재건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가 지배이념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60년대는 국가주의적 산업화를 준비하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이념이 마련되는 시기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 시기 여성작가들이 제기한 가족이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이들이 문학사에서 사라져간 과정을 따라가 보는 작업은 지금 우리 문학사에서 침묵된 목소리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멜로드라마란 용어는 통상 주정주의(emotionalism)와 감상성(sentimentalism)의 음역을 강조하는 일련의 하위장르를 언급할 때 쓰인다. 원래 이 용어는 그리스어 멜로스(melos, 노래/음악)와 드라마(drama, 극)가 합쳐진 말로 음악극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점차 대중적인 통속극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되어 지금은 TV드라마, 영화, 연극에서 감상적인 통속극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구에서 멜로드라마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은 「눈물 쏙 빼는 드라마」라는 제목의 잡지 기사가 나왔을 때라고 한다. 이 장르의 작품들은 감정 혹은 행위의 과잉과 자극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특징[1]으로 한다. 장르적 특

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토스(고통스런 불행) 둘째, 과도한 감정 셋째, 도덕적 양극화 넷째, 비고전적 내러티브 구조(우연성, 뒤엉킴) 다섯째, 선정주의(스펙타클 효과)[2] 등이다. 지금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일일드라마나 막장드라마 등이 이러한 멜로드라마의 전형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장르가 형성된 시기는 언제인지, 그 특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여성적 장르로 인식되는 것처럼 출발부터 여성작가 대중소설의 특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1960, 70년대 한국의 멜로드라마가 형성되는 시기 여성잡지와 신문연재란 등은 상업적 독서시장을 확대하면서 여성작가의 창작기반이 되었다. 이후 1970년대 영화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작가의 대중소설은 영화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이때 형성된 장르적 특성이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구성한 것이라는 가설이 필자의 생각이다. 신문이나 잡지의 연재소설은 여성작가와 독자층을 연결해주는 글쓰기장이 되어 전문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지만, 상업성 때문에 작가들 스스로도 매문이라 폄하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성의 프레임을 거두고 다시보기를 해보면 여성작가의 대중소설에서 시대의 감정구조와 여성정체성의 형성을 이끌어간 페미니즘 소설로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의 멜로드라마는 전후 파괴된 가족의 비극을 다루는 작품이 많았으며, 모성을 강조하는 작품이 주로 창작되었다. 〈자유부인〉(1956), 〈미워도 다시 한 번〉(1968) 등의 영화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아프레걸에 대한 비판과 모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여성개인에 대한 처벌과 가족이념의 특권화가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었는데, 특이하게 학생들이 읽는 청소년잡지『학원』,『여학생』 등에 연재된 순정소설도 이러한 가족, 모성 강조의 주제의식이 두드러진다.[3]

---

1 벤 싱어, 이위정 역,『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63쪽, 69-72쪽.

2 위의 책, 74-81쪽.

3 순정소설, 순정만화 등 '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한국의 소녀장르의 형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전후 가족소설, 가족만화의 자장 안에서 이 장르들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서은영,「'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대중서사연구』제21권3호, 대중서사학회,

197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멜로드라마도 변화된다.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사회비판적 소설을 영화화하는 흐름이 주를 이루면서 〈별들의 고향〉(1974), 〈영자의 전성시대〉(1975), 〈겨울여자〉(1977)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들은 남성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작품들이다.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진입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여주인공이 도구화되고 여성의 몸이 소비적으로 전시되는 성애영화였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성적 자유를 말하면서도 여성 자신의 욕망이 매개되지 않은 대상화된 몸이 재현되기 때문이었다.

그와 다른 흐름으로 여성작가들의 멜로드라마가 한 축을 형성한다. 최정희, 박경리, 정연희, 구혜영, 전병순 등의 작품들이 1960, 70년대 여성작가의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이룬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독신녀』 분석은 이러한 여성주의적 특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전병순의 작품은 이러한 멜로드라마 장르의 형성 시기와 맞물려 있다. 가부장적 장르관습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 작가가 교란시키고 있는 규범은 무엇인가. 왜 당시 여성독자들에게 인정받았음에도 문학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독신녀』

전병순의 『독신녀』는 부산일보에 196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재된 장편소설로 1977년 자유문학사에서 상하권으로 출간되었다. 연재 당시에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고 하며, 단행본 출간 당시에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한다.[4] 이러한 작품의 인기를 기반으로 1979년 영화화(감독 문여송)되어 92,090명

2015, 151쪽.)

4 매일경제 「금주의 베스트셀러」에 의하면 1977.11.29.-12.13, 주간 4위, 12.20일 주간 3위에 올랐다고 한다.(정미선, 「『독신녀』의 영화화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 문화의 젠더 정치-소설 『독신녀』와 영화 〈독신녀〉의 관계적 규범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99집, 중앙어문학회, 2024, 214쪽, 재인용)

의 관객이 관람한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개봉일이 대통령 피살사건이 발생한 10월 26일 다음 날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라고 한다. 당시 최고 흥행작인 〈겨울여자〉,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등이 30만에서 50만 이상 관람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독신녀〉 영화의 흥행성적은 이 작품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상자료원 기록(그림1)을 참고해 보면 영화 줄거리는 소설 작품과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정미선은 원작소설의 불온성이 순치되고 여성주인공이 가련한 피해자로서의 위치성이 강조되는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성애적 대상으로 스크린에 재현되는 여주인공의 몸이 소비되고 전시되는 당시 에로물의 문법을 따르고 있으며, 집 밖으로 나간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피해자로 구성되고 처벌되는 젠더정치학을 보여준다는 것이다.[5] 『독신녀』 소설에 대한 연구로는 드물게 이 작품을 자세히 다룬 연구[6]로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소설 텍스트보다는 영화화 과정에 집중된 연구였다. 소설 작품을 자세하게 다룬 연구로는 최다정의 박사논문[7]이 있다. 1960년대 여성작가 대중소설을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여성작가들이 재현한 고통, 수치, 불안 등의 정동이 남성중심 문학사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잠복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특히 『독신녀』에서는 여성주인공의 사랑-결혼-임신-출산이라는 가부장적 재생산 프로세스에서 사랑과 수치심의 개입을 차단한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박월라의 임신과 출산의 선택이 "기존의 재래식 남녀의 결합에 재래식 자녀 생산의 길"을 위반하고 있으며 모계를 중심으로 한 재생산주의를 제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소설 『독신녀』가 1960년대 연재될 당시부터 왜 그렇게 독자의 주목을 받았는지 이 작품의 의미를

5 정미선, 위의 논문, 212쪽. 정미선의 앞선 연구에서는 전병순 작품 세계 전반을 다루었다.(「전병순의 작가적 생애와 소설세계 연구-여성작가의 글쓰기와 여성 주체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61, 한국문예창작학회, 2024.)

6 임금복, 정호웅 등의 연구가 있으나 『독신녀』에 대해서는 줄거리 소개(임금복)나 성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언급(정호웅) 정도가 이루어졌다.(임금복, 「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장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정호웅, 「전병순」,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2, 소명출판, 2008.)

7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 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4, 199-200쪽.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1] 한국영상자료원 DB



이 작품의 주인공 박월라는 어린 시절 달례라 불렸던 인물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27세부터 38세까지 약 10여 년의 시간을 스토리타임으로 다루고 있다. 그녀는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이 입양된 아이임을 알고 늘 출신에 대해 비관하는 마음을 지닌 채 성장한다. R여대를 졸업한 후 고향 속초로 돌아가 중학교 교직생활도 1년 하지만 양모의 친정조카이자 소꿉친구이던 박민호와 결혼 말이 나오자 이를 거절하고 몰래 상경, 독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자신의 입양 사실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사실 3년 전 김창석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녀는 더 이상 민호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피해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독신녀로서 아이만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그 첫 번째 대상이 김창석이다. 그는 미국에서 원자력 평화상을 받은 과학자이며, 신라 왕가의 후예로 문정공 서보의 12대 종손이다. 그의 유전적 우월함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전적 정보로만 그를 선택한 것이다. 두 번째 아이의 아버지는 성악가 방성호이다. 오랜 투옥(충분한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마도 좌익 관련으로 억울하게 장기수가 된 것으로 보임)으로 자신의 예술성을 충분히 펼쳐볼 수 없었던 천재 음악가에 대한 연민으로 그의 아이를 출산한다. 그러나 유학을 떠난 그의 비극적 자살소식을 접하게 된다. 세 번째 임신한 아이는 민호의 아이였고, 돌고 돌아 자신의 사랑을 깨닫지만 사고로 그 역시 사망한다. 박월라는 사실 양부의 친자였고 이를 받

아들이기 어려웠던 양모와 갈등했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짊어지면서 모녀는 화해하게 된다. 민호의 죽음 이후 세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남긴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이 작품을 지금의 독자가 처음 접한다면 박월라의 첫 임신대상의 선택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우수한 유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행을 했던 남자를 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선택하는 여주인공의 행위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의 신문 연재소설로 이 작품이 지배이념으로 삼고 있는 당시 이슈를 살펴보고 '우생학'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읽어 보면 이 작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한다. 대중적 멜로드라마가 이념의 선악대립으로 당대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고민한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 작품이 선택한 주제는 가족계획, 모자보건법으로 이어지는 박정희프로젝트의 출산통제 정책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우월한 유전자에 대한 우생학적 이념은 건강한 국민의 생산, 국민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근대국가 이후 늘 강력한 국가 통치 방법의 하나였다. 나치의 우생학이나 일제 하의 우생학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8] 1960년대는 '우생학의 재림'이라 부를 만큼 우월한 유전자의 선택문제가 가족계획사업의 이면에서 출산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9] 그러한 우생학의 국가통제나 가부장적 계승문제에 대한 여성적 전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불온성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성폭행의 피해자로 규정하게 되면 당대로서는 수동적 주인공의 비극적 서사밖에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작품의 도발성은 성폭행의 가해자를 자신이 원하는 정자의 제공자로 위치지움으로써 여성 주체의 능동적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버린다는 점이다. 영화제작과정에서 검열을 통해 무엇이 제거되는가를 보면 이 소설의 불온함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당시로서는 여성이 우생학적 선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출산이 아닌 불임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월라가 우월한 유전자를 선택한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8 이선옥, 「우생학과 제국주의의 성정치-채만식의 『여인전기』와 이기영의 『처녀지』」,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276-280쪽.

9 소현숙,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역사비평』132, 역사비평사, 2020. 가을, 283-284쪽.

(연민으로 선택하지만 방성호 역시 예술적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다.) 모두 불임으로 개작되는 부분은 이 작품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검열에 의해 불임으로 개작된 내용은 여성이 우생학적 선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도발성이고 불온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포지티브 우생학, 국가통치의 수단인가 여성 개인의 선택인가

흥미로운 사실은 비슷한 시기 발표된 이건영의 『회전목마』의 주제도 유전 우생학이라는 점이다. 1966년 한국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장편소설 모집 당선작인 이 작품은 혈족 간 결혼이 질병 소질의 유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설이다. 1967년 9월 19일에서 1968년 6월 16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는데 유전의 공포를 서사로 하는 특이한 작품이다.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한 어머니와 '정신박약'[10]으로 태어난 딸, 유전적 공포로 삶이 무너지는 네 명의 형제자매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1967년 유현목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11] 이 작품이 네가티브 우생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면 『독신녀』는 포지티브 우생학을 다루고 있다. 네가티브 우생학이 유전병, 정신질환 등 열성유전에 대한 공포를 다룬다면 국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성형질을 확대재생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포지티브 우생학이다. 포지티브든 네가티브든 출산통제를 통해서 권위적 통제국가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12] 이 시기에 이렇게 대조적인 작품

10 당시의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는 용어로 현재는 '지적장애'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대 이후 기형아 출산이나 정신박약아 출생을 막는 것을 목표로 유전학에 기반한 산전진단기술이 도입 발전했다. 태아 감별 검사는 성별 검사로 변질되면서 여아 낙태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최은경, 「1970-1990년대 한국 유전자 산전진단기술 도입-성감별에서 기형아 공포로」, 『사회와역사』 135권, 한국사회사학회, 2022, 91-92쪽.)

11 안서현,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 우생 관념과 우생학적 시간성-이건영의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가족과커뮤니티』 제11집, 전남대인문학연구원, 2025, 201쪽.

12 김호연, "우생학은 그 실행 목적과 방법에 따라 positive/negative eugenics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적극적/소극적이나 긍정적/부정적과 같은 가치판단이 적재될 수 있는 번역 용어보다는 별도의 번역어 없이 우수한 형질이라고 판단한 생물학적 질을 개선하려는 우생학은 포지티브 우생학(positive eugenics)으로, 우수하지 못한 형질을 제거하려는 우생

이 신문연재 소설로 등장하고 인기를 끌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특히 네가티브 우생학을 주제로 삼은 유전적 공포서사가 국가적 정책에 이념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병순이 포지티브우생학을 선택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보인다. 권위적 국가우생학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1961년 가족계획사업은 산아제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면서 우생학 논의가 재점화된다. 우생학은 출산이 단지 양적인 조절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통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의학전문학자들이 일본의 국민우생법을 모델로 꾸준히 우생법 도입을 논의하였고 1964년 우리나라에도 국민우생법이 발의되었다. 국민우생법은 이후 1973년 모자보건법으로 변형 통합되어 공포되었다.[13] 우리나라에서 우생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1920년대 이후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통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인종개선학' 혹은 '민종개선학'으로 번역된 우생학은 나치의 우생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인종간의 우열을 과학화하여,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대표적 기제로 작동한다.[14] 우생학은 가부장적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제국주의 통치술의 한 방법이었다. 유전형질의 우월함과 열등함을 가르고 건강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단종법이나 출산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식도 동원되었다. 유태인, 조선인, 중국인 등 식민지민들의 인종적 열등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한 우생학은 권위적인 국가만들기의 주요 통치술이었다.

소현숙은 1960년대를 우생학의 재림으로 명명하면서, 네가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의 대표적인 사례인 장애소녀의 강제불임시술 사례를 분석

학은 네거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골튼(F. Galton)의 정상(normality) 개념과 우생학(eugenics) 그리고 성(性)」, 『동국사학』 77집, 202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373쪽)

13 안서현, 앞의 논문, 199-200쪽 참조.

14 이케다 시게노리의 열등자 분류를 보면, ①유전에 의한 정신허약자 ②유전성의 정신병자 ③간질 ④선천성의 생리적허약자 ⑤선천성 기형자 ⑥무도병의 병적 이유가 유전적 질병소인을 가지는 자 ⑦생래의 맹인, 농아 같은 특수 감관의 장애자 ⑧만성취벽자, 상습적 범죄자, 매음부, 빈궁자와 같은 나태계급이 속했는데 환경적 요인도 유전적 요인에 포함시켜 열등화의 근거가 되었다.(池田林儀, 『遺傳と優生學』, 家庭科學大系 제13집, 家庭科學大系刊行會, 1929, 95쪽.)

하고 있다.[15] 네거티브 우생학은 특정 집단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구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우생학적 관점을 의미한다.[16] 이 시기 국민우생법이나 모자보건법은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1973년 모자보건법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입법 취지를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장애나 신체질환 등 우생학적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적 낙태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생명에 대한 선택적 통제를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로 인해 장애자, 정신과 환자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하거나 여아 낙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현재환의 연구에 의하면 해방 후 일본의 민족위생학을 기본으로 한 우생학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과학으로 소개되었고, 생물학자, 의학자들이 생물 교과서에 민족소질의 개량을 위해 적극적인 우생학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싣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68년 대학의 유전학 교과서 사례에서는 골튼(F. Galton)의 인종개선학을 소개하면서 단종수술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까지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을 가진 사람이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하겠다... 집단의 행복을 누리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인류 집단을 유전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일찍이 Galton은 인류가 유전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인류를 유전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으로 우생(eugenics)에 관한 일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집단 내의 악성유전자를 도태시켜 민족의 유전적 소질을 정화시키는 것을 우생정책의 한 목표로 삼고 세계 각국에서는 우생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생법 제정에 관하여 여론이 많지만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실시해 왔으며 나라 안에 국민우생연구기관을 두고 연구

15 소현숙, 앞의 논문, 283-284쪽.

16 김호연, 앞의 논문, 373쪽.

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1941년에 국민우생법, 1948년에 우생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악성유전병 환자의 우생수술(단종수술), 인공임신중절 등이 허용되어 있다.... 악성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유자를 발견하여 우생학적 처리를 하면 도태의 효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정신병... 발병 전에 보유자로 확인하면 자손을 낳지 못하게 지도하여 도태율을 높일 수 있다. 위에 말한 것은 우생방법 중 소극적 방법이라 하겠으며, 적극적 방법으로는 인류유전학에 대한 계몽, 환경의 개선 등 우수한 형질을 증가시키는 데 노력하는 방법이다."(강영선 외, 『신제유전학』, 문우당, 1968: 335-337)[17]

전병순이 대학에서 유전학 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당대의 『여원』이나 『여학생』 등의 잡지 등을 통해 이런 이론들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좀 더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작품에서 "유전학은 전부터 제가 취미 삼아 연구해 왔어요. 혈통이 우수한 가문이시라는 것도 알아보았읍니다."(상1장, 10쪽)라고 김창석에게 말하는 대목이나 산부인과 의사와도 유전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다루고자 하는 지식담론이 유전학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우생학이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기도 하는데 방성호의 의욕 부족에 대해 우생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우생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 후천성으로 길러졌던 당대의 개성은 이제 3세로 내려가는 동안 선천성으로서 용해되어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의문에 부딪친 월라는 지금이 밤만 아니면 이대로 곧 차를 대학 연구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로 돌려 규명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하9장, 53쪽)

"우수한 종족만이 남아야 한다"(하9장, 48쪽)는 생각을 지닌 월라는 성악가 방성

17 현재환, 「해방 이후 한국의 '민족우생'론과 의과학자들, 1945~1964」, 『사회와역사』 제136집, 한국사회사학회, 2022, 64쪽 재인용.

호의 예술적 재능은 인정하지만 체격과 건강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서는 그가 미달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오랜 감옥살이로 〈의욕 부족〉이라는 성격적 결함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후천성이 유전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그의 아이를 거부하지만 홀로 외롭게 유학을 떠나는 그에 대한 연민으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로 한다.

『회전목마』와 거의 동시기에 발표된 『독신녀』가 이데올로기적 대결로 삼고 있는 주 갈등을 우생학으로 보면 흥미로운 문제의식들을 볼 수 있다. 대중소설은 당대의 지배이념과 부상하는 이념이 경쟁하고 경합하는 장이다. 이 두 작품 모두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 가족계획사업의 이면에서 논의된 우생학이 여성독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태문제(임신종결의 허용문제)와 결부된 생명선택의 문제는 여성의 실제 삶을 조건짓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금 읽으면 우월한 유전자를 선택하여 차별적 우생학을 선택한다라는 의구심이 떠오르지만 여성이 우생학을 전유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계급화를 비판하고 질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매우 특이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4 생명 재생산, 여성의 선택과 모가장의 가능성

> “꼭 하나만 아들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 애는 아마 완전무결할 거예요”
> “나머지의 제 생애는 그 애가 제 환경이나 출생 성분을 비관하거나 기존 사회의 박해나 백안시에서 꺾이지 않고 제 생명에 무한히 높은 긍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바치려 생각합니다.”(상1장, 9쪽)

첫 번째 출산을 결정하는 주인공 월라는 유전적으로 완전무결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우생학적으로 본다면 포지티브 우생학, 즉 우월한 인간의 출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선택의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으로 우생학의 선택 주체는 결코 여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생명의 계급화를 시도하는 우생학은 이론의 출발부터 제국주의의 권력화, 인구통제를 통한 차별과 배제를 위해 작동해왔다. 직접 생명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통제의 대상이면서 통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었다. 마사 누스바움은 월경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동물적 취약성이 완벽한 인간, 완벽한 남성 주체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비체가 되어왔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동물적 취약성은 부패나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완벽한 신체를 위해서는 부정되고 버려지는 신체가 되는 것이다.[18] 현모양처(motherhood)가 타자라면 찢어지고 피흘리는 출산하는 여성의 몸은 완벽한 인간을 상상하는 남성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버려져야 할 인간의 동물성(비체, Abjection)인 것이다.[19] 이러한 생명생산의 신체성과 윤리성을 여성성과 결부시키곤 하는데 이 작품은 과감하게 여주인공을 우생학적 선택의 주체로 뒤집어놓는다.

낙태(임신종결)도 죄책감 없이 처리되고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해서도 당시의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적극적으로 서술된다. 작가로서는 파격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싶었던 듯하다.

> 실수로 세 번인가 임신이 되었어도 월라는 그젠 혼자서 삼류 병원을 찾아들어가 일찌감치 긁어 내버리곤 하였던 것이다.(하11장, 167쪽)

월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다. 그녀는 출산에 대해서도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민호와 월라가 싸우는 장면을 예로 들어 보자.

> "네 말대로 넌 맨 처음 아이를 갖고 싶어서만 남자와 접근했다고 치자. 나하고는 뭐? 뭐라고? 나하고는 육체와 정신의 고독을 메꾼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방 성호는 뭣 때문에 필요했던가 말야. 말해 봐. 그새

18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7-208쪽.

19 '비체'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폐기되는 비천한 몸, 더럽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인간 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몸이다. 즉 찢어진 몸, 피 흘리는 몸, 체액, 피, 침 등이 몸의 경계를 뚫고 몸의 불안정성, 취약성, 동물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모양처가 가부장적 상징계의 세계에서 타자로 구성된다면 비체가 된 여성의 몸은 상상계 너머로 추방된다.(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116-117쪽.)

낀 뭣 때문에 필요했던가. 수술을 해야겠다는 걸 보니 아이 낳기 위해선 아닌 모양이군. 넌 나하고도 그건 거절한 여자니까 그럼 뭐야? 육체와 정신의 고독을 나 하나 가지구선 메꿀 수 없었단 말야? 공백 시기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도대체 나하고 그 새끼하고 교대로 필요했더란 말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하10장, 160쪽)

"박월라-. 넌 뭐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 누구의 새낀지도 알 수 없는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놓고 말야. 천하에 더럽고 얄미운 계집 꼴이 되어 가지고 말이지. 인간? 인간 좋아하네. 네가 말하는 인간은 김창석이나 방성호 같은 놈들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말이지. 내가 볼 적엔 천하의 도둑놈들이더란 말야."(하12장, 223쪽)

민호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월라에 대한 비판은 독자의 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녀는 부정한 행동을 일삼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세상의 시선이나 민호의 비난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자신일 뿐예요."(하10장, 158쪽)라는 말 속에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어떻게 살건 민호씨가 무슨 상관이란 말예요. 민호씨뿐 아니라 아무도 아무에게도 난 구속을 받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무에게도 난 빚이 없어요. 잠시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일부에 접했다 해서 나를 소유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 개체는 어디까지나 그 인간 그 개체일 뿐인 거라고 생각해요."(하10장, 158쪽)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남녀관계에서도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질문이다. "족보 항렬 따위 그런 게 아마 제겐 없어서 이렇게 외톨이 같은 인생관을 지니게 되었나봐요. 난 호적도 지금은 없는 몸이니까요. 이 지구상엔 제 호적이 없어요."(하10장, 159쪽)라

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인물이 탈가부장적 경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상에 호적이 없다는 그녀의 존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결말은 표층서사에서는 보수이념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말을 보면 그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아이를 지키는 모성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렇죠. 처음에 저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제 필요물로써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며 무책임하게 낳아 제치는 여자들을 경멸했어요. 그리고 저만은 이 인류의 전진을 위해 우수한 인간을, 완전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나만 낳아 이상적으로 길러내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호상이 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하12장, 234쪽)

둘째 아이의 출산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는 그녀는 민호의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닌 이 배 안의 아이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물론 모르지만 민호씨의 아이라는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마음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하12장, 234쪽)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 이외에 어떤 의미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민호가 죽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월라는 민호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이제 세 아이의 어머니 되는 몸으로써 명실공히 독신녀의 위치로 되돌려진 것이다."(하13장, 355쪽)라는 서술로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 김창석, 그 사나이에게 그렸던 꿈. 그것이 실현되어 그의 인자로써 태어난 아들 호세가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 버린 지금 월라는 이제 젊은 시절의 자신의 꿈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이었던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민호. 나의 사랑 민호.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살아 내 아이들과 함께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하14장, 356-357쪽)

위 예문은 우생학적인 자신의 선택이 젊은 시절의 황당무계한 행동이었다고 성찰하는 대목이다. 이제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월라는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마무리짓는다. “한 선하고 진실했던 남성을 통하여 일찍이 의곡되었던 남성관을 시정함으로써 인생에의 전반적인 긍정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하14장 마지막 결말 문장, 362쪽)라고 끝맺는 마지막 문장은 민호의 선함으로 성장하여 진정한 모성으로 거듭나는 결말이다. 프로타고티스트의 잘못된 선택과 처벌, 개심의 구조를 보이는 전형성을 띄고 있다. 아들낳기에 대한 염원이나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여 과학자, 음악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대목도 가부장적 이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중적인 멜로드라마가 모험을 하는 이유는 아직 지배이념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떠오르는 저항이념을 실험하는 장이 된다는 점이다. 텍스트의 심층구조에서는 새로운 독자의 욕망을 반영하여 시대적 감정구조를 변동시키는 것이다.

그 변화의 지점에 모계혈연 중심,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족윤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시된다. 가부장적 재생산의 통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새로운 이념적 실험을 하고 있다.

> “난 지금은 오히려 호세를 가졌던 당신의 정신을 찬양하고 싶어, 씨야 누구의 것이 되었건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낳았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 길러낸 이상 호세는 우리들의 것임에 틀림없단 말야”(하13장, 346쪽)

“씨야 누구의 것이 되었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이고, 함께 길러낸 아이라면 우리의 아이라는 관점은 가부장 혈연가족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제의식이었을 것이다. 물론 민호의 이런 변화도 월라와의 치열한 갈등 끝에 얻게 된 변화이다. 이 둘은 결국 사랑을 확인하고 아이들 모두를 애정으로 품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부장적 혈연에 대한 과대평가가 모든 서사의 중심이 되는 관습적 플롯에서 보면 박월라의 친부찾기가 플롯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친부찾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1960년대는 아직 유전자 검사를 통

한 친자검사[20]가 개발되기 이전이라 증언이나 증거자료를 통한 친부찾기 서사가 전개되는데 서브플롯으로 여주인공의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처음 업둥이로 들어왔을 때의 포대기와 이름과 생일 생시를 쓴 편지를 지니고 있던 양모가 아버지의 필체임을 알아내고 이를 밝히게 되지만 아버지는 늘 주인공의 지지자이자 조력자로 존재할 뿐 월라의 인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아비찾기가 주갈등이 아닌 것이다. 친부와의 관계를 서브플롯으로 두고 이 작품이 제기하는 주제는 모가장의 확대가족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아버지도 민호도 모두 죽은 후 양어머니와 월라,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 작품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다.

> 그리하여 자손이 없어 슬펐던 어머니의 노후를 편안히 모셔 드리고 가엾은 세 아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터주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재력을 갖춰 박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딸 월라와 그녀가 낳은 박씨 가문의 후손 호세와 호상이와 또 호자 돌림으로 지어질 배 안의 민호와의 아이, 그들 전부가 비록 호적이나 족보에는 기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번성하여 뛰어난 족속으로서 길이 뻗어 나가 자꾸 더 우수해질 수 있도록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다.(하14장, 359쪽)

박씨가문을 잇는 모계혈통의 가족이 가부장적 호적이나 족보에는 기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뛰어난 족속으로 크게 번성하는 일이 그녀의 과업으로 남아 있다. 작가는 모가장으로서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딸라장사에서 증권투자, 부동산투자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이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가는지도 상세하게 다룬다. 집을 세 채 소유할 정도로 투자에 능하고, 증권투자를 하던 자금을 정리해 부도 위기에 놓인 민호의 자금 사정도 해결한다. 그

20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1984년 영국의 알렉 제프리에 의해 DNA지문법이 개발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도입되었다.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실이 설치되면서 친자감별 및 범죄수사에 DNA분석기술이 국가적으로 도입되었다.(제미나이 3.0, 한국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도입에 대한 답변, 2025.12.13., https://gemini.google.com/share/a63692a1a4fb)

리고 이러한 투자의 능력으로 사기를 당해서 위기에 빠진 아버지의 사업을 구해낸다. 주인공의 이런 능력은 모가장으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자립적 여성상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5 과학적 플롯과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선택과 갈등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이 작품은 포지티브 우생학을 중심으로 한 섹슈얼리티의 선택이 중심서사가 되고 있다. 네거티브 우생학을 중심으로 한『회전목마』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도전적인 플롯이다. 김호연은 우생학의 실행 목적과 방법에 따라 positive/negative eugenics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적극적/소극적이나 긍정적/부정적과 같은 번역어가 가치판단이 포함될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생학이 선택적인 생식 또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그 기초로 삼고 있기에 포지티브이건 네거티브이건 간에 그것은 성찰적 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생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수한/열등한 형질의 판단 근거는 여전히 불명확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1] 우생학에 대한 이 견해가 타당하고 생각하며 이러한 번역법을 따르면『독신녀』는 포지티브 우생학을 중심 서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주인공의 행위 역시 이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서사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 작품이 과학소설이 아니면서도 당시 독자의 과학지식에 대한 욕망에 호응한다는 것이다. 당시 과학주의는 여성잡지의 중심담론을 이루고 있었으며, 과학기술 발전은 모두에게 선이 된다는 기술결정론은 국가 정책의 중심 이념이었다. 이러한 당대 지식담론을 반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펼치고 있어서 독자의 흥미를 집중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우생학적 선택과 모가장 서사도 흥미롭지만 이 작품의 재미는 그 선택으로 인해 벌어지는 섹슈얼리티티의 무한한 관계 얽힘이다. 박월라-김창석(선망), 박월라-방성호(연민), 박월라-민호(사랑), 게다가 박월라-민호-본처 사이의 삼각관계, 부모세대의 친모-양부(친부로 밝혀짐)-양모 사이의 서사까지 얽히면 이 작

21 김호연, 앞의 논문, 373쪽-374쪽.

품의 남녀관계와 선택의 문제는 무한증식하게 된다. 신문연재소설로 이 관계들을 따라 읽으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지는 흥미진진한 재미를 제공한다.[22]

그 관계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삼각관계는 월라-민호-본처의 관계이다. 이 삼각관계는 서울에 사는 월라와 민호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벌어지게 된다. 이미 두 아이를 출산한 여주인공이 결혼해서 자신의 양부모를 모시고 사는 양오빠와 내연의 관계가 된다는 설정은 독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설정이다. 그러나 민호의 처는 RH- 혈액형의 여성이고 첫 아이를 유산한 이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RH+ 태아를 임신한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첫 임신 후 모체에 생긴 항체의 공격으로 유산된다는 의학지식을 제공하면서 이 부부의 불행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여성의 부적합 임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월라와 민호의 사랑에 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서술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결국 민호의 아내는 스님이 되어 출가한다. 물론 월라의 선택은 이해는 되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고 민호의 죽음으로 이 선택은 결말을 내린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과학적 지식을 사건 전개의 기본 플롯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과학소설이 아님에도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인물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전개하는 특성은 이 작품이 당대 여성독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 우리들의 행위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인과를 추궁해 들어가 분석 비판해서 후일의 보다 나은 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과학적인 원인과 결과를 말이에요. 도피적 종교에서 말

22 단행본 출간 당시 작가는 이 작품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의 불행의 원인을 3가지로 설정, 거기서 아이 하나씩을 만들어놓은 셈이지요. 종족보존의 본능, 모성애적 본능,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 이 3가지가 어떻게 한 여인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좇아가 보았어요."(「주말에 만난 사람-장편소설 『독신녀』 내놓은 전병순씨」). "가정이란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남녀의 존재방식을 모색해 본 것"(「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독서신문』, 1977.11.20.)

하는 인연, 인과설이 아니고 말이지요.(하13장, 338쪽)

주인공 월라는 늘 과학적인 사고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나자고자 한다. 민호의 소극적이고 운명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한 그녀의 삶도 머리와 가슴의 분리, 여자의 본능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성찰하면서 점차 머리로만 하는 선택이 쉽지 않음을 고백한다. 그리하여 민호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결말을 맺게 된다. 그러나 사랑의 핵심요소인 운명적인 만남이 이미 과학과 대결하고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작품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망을 지닌 독자들과 흔들리는 지배이념 사이의 협상에서 과학적 지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산을 둘러싼 유전학과 운명, 과학과 사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과정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당시 독자들에서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이다.

1960, 70년대 박정희 근대화프로젝트는 기술민족주의와 기술결정론을 산업화의 핵심 이념으로 삼았다. 재생산 영역 역시 생산영역의 후방부대로서 공장의 생산합리성을 적용한 테일러주의의 일상화가 전개되었다. 『여원』의 생활합리화, 과학화, 수치화 담론은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23] 국가주의적 과학주의 이념이 전파되는 시점에 출산정책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과학적 이론의 플롯화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은 이 작품의 다시보기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시대적 화두의 여성적 질문

불완전하지만 질문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레이몬드 윌리엄즈가 말하

23 식민지 우생학이 여성신체를 직접적으로 도구화하고 동원하는 방식이라면 1960, 70년대 기술민족주의는 첫째, 생활의 과학화를 통해 테일러주의를 생활화하고 둘째, 호르몬과 건강담론으로 신체를 규율하고 국민으로 재구성해낸다. 당시 잡지 『여원』의 기사를 보면 재생산영역을 테일러주의(공장생산합리화)로 합리화 ,수치화, 표준화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체계(알뜰주부상)로 대중화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재생산영역 역시 생산을 위한 '전국민과학화운동'의 후방부대로 재편되는 것이다.(이선옥, 『태권V와 명랑소녀 국민만들기』, 책과함께, 2022, 2장 과학주의 수용과 젠더:우생학에서 기술민족주의까지, 40-43쪽 참조.)

는 것처럼 대중문화는 지배이념과 부상하는 이념, 쇠퇴하는 이념이 경합하는 이념적 투쟁의 장이다. 지배이념과 피지배이념 간의 협상과 절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중문화를 한 시대의 도덕적 우화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TV드라마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키스씬은 금기인 상태가 현재 한국 대중문화의 이념적 경계선이 흔들리는 지점일 것이다. 대중소설 역시 선악의 이분법으로 한 시대의 이념을 갈등화하고 대중들의 도덕적 경계선이 어디쯤에 있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다루곤 한다.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은 지금의 TV드라마 정도의 파급력과 대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파급력을 생각해 볼 때 전병순의『독신녀』가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생학이 다시 논의되고 가족계획사업으로 진행된 출산통제가 국가권력으로 집중되어 가는 시점에 여성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우생학의 선택이 가부장적 국가권력에서는 긍정적 우생학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될지 모른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다는 목적에 반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순간 당연한 지식은 부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그 상식에 균열을 내게 된다. 진짜로 긍정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당연한 상식이 질문이 되는 순간이다. 이 작품은 이런 질문들을 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생학적 선택이 당연한 것인가, 국가적 권력 하에서 출산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60년대 권위주의적 국가 우생학이 추진된 결과가 개인의 신체권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전병순의『독신녀』의 의미는 좀 더 분명해진다. 신체와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개인 주체의 정립이라는 측면에 주목해보면, 주인공의 월라의 선택은 국가주의적 출산통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읽어낼 수 있다. 생명재생산과 섹슈얼리티의 국가적 통제는 결혼, 임신, 출산, 낙태와 같은 실제 여성의 구체적인 삶으로 틈입해 들어오게 된다. 여성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여성작가의 대중소설은 많은 작품들이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를 규정하는 국가정책과 결부되어 있다. 특히 전병순, 구혜영, 정연희, 박기원 등의 작품들이 그러하다. 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재소환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생명재생

산이 권력화되고 위계화되는 과정에 대한 여성작가들의 문제제기가 문학사에서 침묵되는 과정에 대한 다시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전병순,『독신녀』상,하, 자유문학사, 1977.

단행본

김재용 외,『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276-280쪽.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7-208쪽.

벤 싱어, 이위정 역,『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74-81쪽.

이건영,『회전목마』, 문예출판사, 1968, 1-340쪽.

이선옥,『태권V와 명랑소녀 국민만들기』, 책과함께, 2022, 40-43쪽.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116-117쪽.

池田林儀,『遺傳と優生學』, 家庭科學大系 제13집, 家庭科學大系刊行會, 1929, 95-100쪽.

논문

김호연,「골튼(F. Galton)의 정상(normality) 개념과 우생학(eugenics) 그리고 성(性)」,『동국사학』 제77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371-400쪽.

소현숙,「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역사비평』 132, 역사비평사, 2020. 가을, 259-294쪽.

안서현,「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 우생 관념과 우생학적 시간성-이건영의『회전목마』를 중심으로」,『가족과커뮤니티』 제11집, 전남대인문학연구원, 2025, 197-222쪽.

임금복,「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장편소설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 2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55-90쪽.

정미선,「전병순의 작가적 생애와 소설세계 연구-여성작가의 글쓰기와 여성 주

체 형상을 중심으로」,『한국문예창작』 61, 한국문예창작학회, 2024, 131-163쪽.
———, 「『독신녀』의 영화화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 문화의 젠더 정치-소설 『독신녀』와 영화 〈독신녀〉의 관계적 규범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어문논집』 제99집, 중앙어문학회, 2024, 211-243쪽.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 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4, 198-201쪽.
최은경, 「1970-1990년대 한국 유전자 산전진단기술 도입-성 감별에서 기형아 공포로」,『사회와역사』 제135집, 한국사회사학회, 2022, 81-109쪽.
현재환, 「해방 이후 한국의 '민족우생'론과 의과학자들, 1945~1964」,『사회와역사』 제136집, 한국사회사학회, 2022, 55-92쪽.

Abstract

Eugenics, Sexuality, and a Melodrama of Choice: Jeon Byeong-sun's "Dogsinnyeo"

Lee Sun-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introduce and reevaluate Jeon Byung-soon's newspaper-linked novel "Dogsinnyeo"(A Single Woman, 1966). This novel is not well known because it is a popular novel in the 1960s and is a work of a female writer. However, if you read this work agai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you can see that it is a unique work that questioned the family planning policy based on birth control and eugenics in the 1960s-1970s. Eugenics was a way of forming an authoritarian state, as representative of Nazi or Japanese imperial eugenics. Eugenics, which controls the quality of the population through ra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ried to explain and naturalize the hierarchy of life in a scientific way. In Korea, eugenics, introduc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is summoned back to the core logic of population policy in the 1960s by family planning for industrialization and birth control policies. The story of the female protagonist's choice of positive eugenics with this issue to the fore is "Doksinnyeo." It consists of a unique narrative that says that she will choose superior genetic factors to have children and live as a single woman with a child. It emphasizes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transforming the process of love and marriage, pregnancy and

childbirth under a patriarchal system into a narrative of choice. In current terms, it corresponds to a non-marital birth narrative. Walla, the protagonist, realizes that the eugenic choice was foolish and ends up being reborn as a motherhood that embraces a child with love.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popular novels are a place where the ruling and resistance ideologies compete and negotiate. This is because it reflects the popular desires of the time. This work also does not completely deviate from the conservative maternal ideology of the time and the patriarchal family ideology of the inheritance of bloodlines. Thus, in the superficial narrative, the patriarchal family ideology seems to be restored. However, the subversive of this work is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y of a maternal ideology that emerges as a resistance ideology in the depths. The ending, in which the optimistic ending presents the future that the three children with different fathers, the main character Walla, and her adoptive mother will build together, suggests that this work raises fundamental problems with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reproduction control.

Key words: Women's literature, 1960s, Melodrama, eugenics, Jeon Byung-soon, Dog-sinnyeo(A Single Woman)

논문제출 / 2025.11.15.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08.